티베트불교 17대 카르마파, 인도 귀국 하나

2017년부터 미국 장기 체류
달라이라마와 회동…귀국 추측
시킴 '룸텍 사원' 거주 고집 중
시킴인사권, 정부에 귀국 촉구

박영빈 객원기자

티베트불교 카르마 카규파를 이끄는 17대 카르마파가 달라이라마와 회동을 가져 그의 인도 귀국 가능성에 대한 추측이 커지고 있다.

인도의 '더 트리뷴(The Tribune)'을 비롯한 외신들은 17대 카르마파 오겐 틴레 도르제 스님이 지난 8월 25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인도로 귀국 중이던 달라이라마를 만났다고 8월 31일 보도했다.

카르마파는 티베트불교계에서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다. 달라이라마가 인정한 판첸라마가 중국당국에 의해 구금돼 행방이 묘연해진 후 카르마파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2000년 14세였던 카르마파는 극비리에 인도로 망명해 달라이라마의 환영 하에 인도에서 망명생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2017년 인도를 떠난 후 유럽과 미국 등을 방문하면서 현재까지 인도로 귀국하지 못하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 당국은 중국정부에서 카르마파를 목표로 한다는 첩보를 받고 카르마파에게 조속한 귀국을 권했다. 그러나 카르마파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국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사이 인도망명인 신분을 포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인도 비자를 신청했으나 인도정부가 이를 거부했다.

익명의 소식통은 "인도정부는 신자가운데 중국정부 관계자가 많고 중국에 강한 영향력을 가진 카르마파가 도미니카 공화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을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카르마파는 망명 직후부터 전대 카르마파 주석 사원인 인도 시킴(Sikkim)의 룸텍 사원으로 가길 원했으나 인도정부가 이를 거절해왔다"며 "인도정부는 대신 델리 근처 드와르카의 대지를 제공해 새로운 사원을 세울 것을 권유했으나 카르마파 측이 룸텍 사원만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카르마파와 같이 시킴의 정치인과 불교계 인사들은 그가 시킴으로 돌아오도록 중앙정부에 촉구해왔다.


달라이라마와 17대 카르마파가 스위스 취리히에서 회동을 가졌다.
사진출처=카르마파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카르마 카규파의 지도자급 스님들은 "카르마파 법좌가 룸텍 사원에 있기 때문에 카르마파가 인도 밖에 머물러서는 지위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카르마파의 조속한 인도 귀국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달라이라마와 카르마파의 회동 소식이 전해지자, 카르마파의 인도 귀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텐진 탁라 달라이라마 사무국 비서는 "두 분이 10분가량 대화를 나눈 것은 맞으나, 개인적인 대화였을 뿐 카르마파의 인도 귀환에 관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리히에서 비공식적으로 달라이라마를 만난 카르마파는 본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라이라마 존자를 직접 뵀을 때, 영상으로 뵐 때보다 훨씬 연세 들어 보이고 목소리도 약했다. 예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에 견딜 수가 없다"면서 "달라이라마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힘을 써오셨는데 이리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슬픔과 감사의 감정이 경쟁하듯 느껴졌다"고 말했다.

'두 번째 붓다' 파드마삼바바 조명 컨퍼런스

8월 28~29일, 인도 비하르주서
영화 상영, 사전 출간식도 진행

인도 히말라야 지역부터 시베리아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 붓다'로 존경받는 스승인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를 집중 조명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인도에서 열렸다.

인도 언론사 '타임즈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지난 8월 29일 인도 비하르(Bihar)주 나비 날란다 마하비라하에서 8월 28~29일 양일간 '스승 파드마삼바바의 삶과 유산'을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됐다고 전했다. 인도, 네팔, 부탄, 스리랑카 등 24개국 학자와 학계 대표들이 파드마삼바바가 히말라야 지역에 불교 전파를 위해 행한 노력과 그의 공로에 대해 토론했다.

파드마삼바바는 8~9세기경의 전설적인 불교 수행자다. 티베트 최초의 불교사원 삼예 사원을 건립했으며 전설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파드마삼바바가 히말라야에 불교를 가르칠 것이라고 예언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티베트, 네팔, 부탄, 인도 등 히말라야 문화권에서는 파드마삼바바가 두 번째 붓다로 존경받으며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제 컨퍼런스 개막식에 공개된 〈팔리어-힌디 사전〉을 들어보이는 내빈들.
사진출처=타임즈오브인디아

개회식에서 라젠드라 비슈와나트 알레카르 비하르 주지사는 "파드마삼바바의 영적 여정은 오늘날 세계에서 불교 사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강한 영향을 미쳤다"며 "그의 삶과 유산은 단순한 불교 사상 전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사회규범 등 광범위하게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부탄왕실사원 수석비서 우갠 남걜 스님은 "파드마삼바바의 철학은 부탄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컨퍼런스가 부탄뿐만 아니라 해외각국 학자들이 파드마삼바바의 삶과 유산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공통 플랫폼이 되길 바란다"며 컨퍼런스의 의의를 짚었다.

컨퍼런스 관계자는 파드마삼바바가 불교의 전통적 대기설법을 따라 포교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파드마삼바바를 둘러싼 전설과 기록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 정보에서 발생하는 흥미로운 주제는 그를 어떻게 문맥화, 지역화 했는가라는 내용"이라며 "그는 불법의 핵심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 각 장소의 문화 환경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컨퍼런스에서는 파드마삼바바가 직접 불교를 전한 지역과 그 영향권에서 가르침이 어떻게 전달됐는지도 함께 다뤄졌다.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영적 연결을 묘사한 다큐멘터리 영화 '인도에서 태국까지: 신성한 유물의 순례'의 특별 상영이 진행됐다. 또한 나바 날란다 마하비하라의 전임 연구원 우마 샹카르 비야스 교수가 편집한 〈팔리-힌디어 사전〉의 출간기념식도 함께 진행됐다. 박영빈 객원기자

"교육으로 미래 희망 심어요"

로터스 아웃리치, 교육봉사 12주년
취약계층 대상 학습센터 15개


부처님의 미소 교육센터에서 야간 수업을 받는 인도 어린이들. 사진출처=로터스아웃리치

인도의 불교봉사단체 '로터스 아웃리치(Lotus Outreach)'가 교육봉사를 시작한지 12주년을 맞이했다. 불교전문매체 '부디스트도어 글로벌(Buddhistdoor Global)'은 지난 8월 28일 이와 같은 소식을 전했다.

티벳불교의 지도자 종사르 잠양켄체 린포체가 1993년 설립한 비영리단체 로터스 아웃리치는 개발도상국 어린이과 여성의 교육, 자립을 돕는 봉사단체다. 취약계층 교육, 정수 공급, 심리상담, 보건 사업 등을 운영하며 여성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현지 비영리 단체인 구루 크루파 재단(GFK), 타밀나두 평화의 정원 프로젝트 등과 제휴를 맺어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을 위한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로터스 아웃리치는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에서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한 야간 학습센터 15곳을 설립했다. 소작농, 채석장 노동자 등의 자녀 보호소이자 교육의 중심지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학습센터는 조정센터, 정규센터로 나뉘어 각각 82명, 570명의 어린이가 방문해 교육받고 있다.

로터스 아웃리치 관계자는 "교육은 빈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교육의 부재는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부처님의 미소 프로젝트'를 통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학업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소외된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줘서 사회 경제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美 벳츠인 사원, 화마 상처 딛고 일어서다

건물 · 문서 복원 불사 진행
2025년 재개원 목표 추진


벳츠인 사원의 타일러 모리구치 주지스님이 임시 법당에 모인 불자에게 법요집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출처=시애틀 타임즈

미국 시애틀 센트럴 디스트릭트 지역 일본계 불교사원인 벳츠인 사원이 복구 사업에 돌입했다.

워싱턴주 일간지 '시애틀 타임즈(The Seattle Times)'는 8월 28일 방화로 피해를 입은 벳츠인 사원의 복구 소식을 전했다.

벳츠인 사원은 시애틀 지역의 일본계 미국인 공동체의 중심으로 음악공연, 운동대회 등이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이었다. 그러나 2024년 새해 전야 한 40대 남성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해 사원 전체가 전소됐다. 사원은 복구를 위해 문을 닫고 이웃 건물로 임시 이전했다.

벳츠인 사원 주지 타일러 모리구치 스님은 "벳츠인 사원은 일본계 미국인이 향수를 달래는 곳으로 일본 전통 명절 오봉(お盆)축제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이전한 임시 사원은 협소해 이전만큼 신도가 올 수 없어 연로한 불자들의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을 겪을 수 있기에 복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원은 2024년 1월부터 사찰 복원 불사를 통해 법당, 체육관, 난방·보안·시청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금을 모연하고 있다. 모리구치 스님은 "화재 보험금은 복원 비용에 비해 부족해 불사를 추진 중"이라며 "다소 시일이 소요되고 있지만 불사와 복원에 많은 불자들이 동참해 감사할 따름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스님은 "윙 루크 박물관과 지역 봉사자들이 기록 보관소에 있던 최소 2만여 건의 문서를 복원하고 디지털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제41기
한마음공생실천과정 교육생 모집

마음의 힘 키우기
인연과 화합하기
달라지는 '나'
주인된 삶

한마음공생실천과정은
마음공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마음공부의 재료로
삼아 믿고 맡기고 지켜보며
나와 내 주변을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는 생활 속
관법 수행입니다.

대 상 : 마음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 누구나
일 정 : 2024년 9월 28일~11월 23일
매주 토요일 오후 1:30~5:30
장 소 : 한마음선원 내 한마음과학원 3층 국제회의실 (주소: 경기도 안양시 경수대로 1282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모집인원 : 총 50명 선착순
신청방법 : 한마음과학원 홈페이지 - hansi.org
수 강 료 : 20만원
문 의 : 031-470-3200/3198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